

# 사진·회화와 만나...진화하는 판화

광주국제판화교류회 '동아시아 현대판화전'

내달 1~12일 금봉미술관  
한·중·일·대만 4개국  
100여명 120여점 출품  
현대 판화 트렌드 한눈에



박선주 작 'paradise'



평 포유주 작 '속세부화계정애연설'

판화는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장르이다. 목판이나 석판을 깎아 물감을 묻힌 후 종이에 찍어내는 전통 기법은 다양한 표현을 담기 어렵다. 현대로 넘어오면서 판화가들 고민이 깊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TV나 잡지, 인터넷 속 화려한 세상에 적응된 현대인 눈높이를 충족시키기에는 표현적 한계가 발목을 붙잡았다.

하지만 판화도 진화하고 있다. 흑백에서 벗어난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실크 스크린, 사진, 회화와 접목하며 장르를 넘나드는 화면을 보여준다.

광주국제판화교류회(운영위원장 김익모 조선대 교수)가 1일부터 12일까지 금봉미술관에서 여는 국제판화교류전 '동아시아 현대판화'는 현대 경향을 한눈에 보여주는 전시다.

지난 2012년 '한·불판화교류전', 2013년 '아시아 현대판화전'을 열었던 판화교류회는 이번에는 동아시아 4개국으로 참여 국을 선정해 같은 듯 다른 분위기 작품을 선보인다. 한국(광주·대구·대전·부

산·인천·제주·울산·충북), 대만, 일본, 중국 등 4개국 대표 작가 100여명이 참여해 120점을 출품한다.

일일이 손으로 깎는 전통 기법을 비롯해 디지털 프린터, 레이저 가공 등 최신 기술로 제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또 인물, 정물, 풍경에서 추상화까지 소재적인 측면에서도 다양성이 눈에 띈다.

소노야마 하루미 일본 판화가협회장이 출품한 석판화 작품 'Sortie de couleur-T'는 판화라기 보다는 흑백 사진으로 보인다. 세밀하게 묘사한 구겨진 천에서 발견된 판화 기법을 엿볼 수 있다.

대만 판화 대가 양밍대 작가는 실크 스크린에 인쇄한 '水衣No11'을 전시한다. 동양 수묵화를 연상시키는 연꽃과 나뭇가지를 소재로 사용했다.

말 갈기가 한울함을 표현한 선 진위연의 '五月在渥太華(May in OTTAWA)'도 사실적인 묘사가 특징이다. 레이저 기법 등은 사람 손으로 하지 못하는 세밀한 작업을 가능하게 했다.

중국 평 포유주(馮寶珠) 작가의 '俗世浮華系#愛蓮說'(속세부화계정애연설)은 사진과 회화가 결합된 작품이다. 일찍이 앤디 워홀과 로이 리히텐슈타인은 실크 스크린 기법을 활용하며 판화 한계를 탈피했다. 평 작가도 실크 스크린을 사용해 연꽃 등을 현대적 느낌으로 재가공했다.

한국 판화 수준도 다른 나라 못지 않다. 광주 박선주 작가가 제작한 'paradise'는 동양적 곡선과 만화적 상상력이 만난 작품이다. 부산 채경혜 작가가 출품한 'rhapsody'는 전통기법에 회화를 가미해 관념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전시장은 4개국별로 작품을 배치해 각 국가간 특성과 흐름을 비교하며 보는 즐거움을 줄 예정이다.

김익모 운영위원장은 "이번 전시는 판화에 대한 인식을 쫓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첨단 기술과 만난 판화가들이 표현에 대한 고민을 덜어낸 흔적들이다"고 말했다. 문의 062-269-988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시민예술가들의 꿈과 열정

위기 직면 '광주 국제영화제' 활로 모색

광주일보 문화예술 전문 매거진

**예향** 11월호



지난 9월 11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광장에서 울려 퍼진 오카리나 합주를 기억하는가? 광주 남구민 8647명이 동참한 이날 합주는 '기네스 북'에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악기 연주로 등재됐다. 취미로 틈틈이 악기를 배운 시민들이 문화예술의 주제로 당당하게 섰음을 실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

광주일보에서 매월 발행하는 문화예술 매거진 '예향' 11월호는 '남도 시민예술가'를 주제로 다뤘다. 단순히 공연을 관람하고 전시장을 찾는 문화향유자에서 한발 나아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고, 무대에서 연기하는 '시민예술가'들을 만났다. 또 아마추어 연주자들을 무대로 불러낸 'ACC(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시민 오케스트라 프로젝트-장롱 속 악기를 꺼내드립니다'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예향 초대석'에서는 한국 추상회화 1세대 작가인 백영수(95) 화백을 만났다. 그는 50년대 김환기, 이중섭 등과 함께 '신사실파' 동인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파리로 무대를 옮겨 왕성하게 예술혼을 피어 올리며 한국미술의 위상을 높인 노장 화가이다. 최근 전시회를 연 대가의 인생과 예술세계에 대해 들었다.

기획 '광주 국제영화제(GIFF)는 안

녕하십니까'에서는 위기에 직면한 당 광장에서 울려 퍼진 오카리나 합주를 기억하는가? 광주 남구민 8647명이 동참한 이날 합주는 '기네스 북'에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악기 연주로 등재됐다. 취미로 틈틈이 악기를 배운 시민들이 문화예술의 주제로 당당하게 섰음을 실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

광주일보에서 매월 발행하는 문화예술 매거진 '예향' 11월호는 '남도 시민예술가'를 주제로 다뤘다. 단순히 공연을 관람하고 전시장을 찾는 문화향유자에서 한발 나아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고, 무대에서 연기하는 '시민예술가'들을 만났다. 또 아마추어 연주자들을 무대로 불러낸 'ACC(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시민 오케스트라 프로젝트-장롱 속 악기를 꺼내드립니다'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예향 초대석'에서는 한국 추상회화 1세대 작가인 백영수(95) 화백을 만났다. 그는 50년대 김환기, 이중섭 등과 함께 '신사실파' 동인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파리로 무대를 옮겨 왕성하게 예술혼을 피어 올리며 한국미술의 위상을 높인 노장 화가이다. 최근 전시회를 연 대가의 인생과 예술세계에 대해 들었다.

기획 '광주 국제영화제(GIFF)는 안

## 박신영 & 홍의정 바이올린 듀오 리사이틀



홍의정

내달 2일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피아노 반주에 맞추거나, 첼로·피아노와 함께 화음을 만들어내는 바이올린 연주도 좋지만 두 대의 바이올린이 함께 어우러지는 연주는 또 다른 느낌을 준다. 마치 서로 대화를 나누듯, 들려주는 화음은 색다른 감성을 전한다.

지역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바이올린 듀오 연주회가 열린다. 프로그램 전곡을 두 대의 바이올린곡으로 채우는 것은 드문 일이다.

박신영&홍의정 바이올린 듀오 리사이틀이 오는 11월 2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박씨가 리더를 맡고 있는 연주 그룹 '바로크 솔리스트 실내악 시리즈' 중 하나로 마련된 공연이다.

연주 레퍼토리는 르클레어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E단조', 모즈코프스키의 '피아노와 두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조곡 작품 G단조', 쇼스타코비치의 '두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5개의 피스', 헨델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파사칼리아', 사라사테의 '나비라' 등을 들려준다.

마지막 곡은 바이올린 솔로곡으로 많이 알려진 사라사테의 '찌고이네르 바이젠'이다.

박씨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시향 1바이올린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역시 한예종에서 수학한 홍씨는 지난해부터 광주시향 제2바이올린 상임 차석 단원으로 재직중이다.

박씨는 "대학 선후배 사이인 의정아와 함께 연습하던 중 아예 리사이틀을 열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 공연을 준비하게 됐다"며 "혼자 연주할 때와 달리 두 대의 바이올린이 어우러지면서 훨씬 다채롭고 화려한 연주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피아노 반주는 최현호씨가 맡았다. 광주에고·서울대를 거쳐 하노버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에 재학중인 최씨는 베를린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2위 입상하기도 했다. 전석 2만원. 문의 010-8999-315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신영

황영성·박석규·송 용·박동민·박종수·신동원·박성현·전희진·정운태

### 원로작가 9인 특별전

기간: 2016. 10.11(화) - 11.11(금)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박물관갤러리

☎ (062) 222-0072 (예술의거리 서문입구)

**novita is COMFORT**

2016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노비타 비데로 욕실의 품격을 높여보세요

행사비데 구입시 1년치 필터(2개) 증정!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본사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www.novita.co.kr

**novita**  
A KOHLER COMPANY

2016.10.04 ~ 2016.11.30

\*설치시 2만원 추가

<p><b>품격1</b> <span style="color: red;">반수</span> 참 편한 비데 <b>Comfort</b></p> <p>NEW</p> <p>단위</p> <p>BD-N443(설치비 별도)    BD-N433(설치비 별도)</p> <p><b>279,000 / 249,000</b></p> <p>+ 브레프 피워 액티브 5종</p>	<p><b>품격2</b> 합리적인 가격으로 실속형 비데 특가</p> <p>BD-K301/A(설치비 별도)    BD-K231(설치비 별도)</p> <p><b>159,000원    159,000원</b></p>	<p><b>품격3</b> 새 비데를 할인가로! 비데 보상 판매</p> <p>BD-K433R/S(설치비 포함)</p> <p><b>219,000원</b></p> <p>*타사 제품 가능</p>
--	--	--

구입문의 | 비데프라자 (062) 515-1144